

▣ 눈떨림은 무엇인가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안구의 불수의적인 진동으로 정상일 수도 있지만 병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에서 눈떨림 증상이 있다면 안과 진료를 필요하며 눈떨림 이외에 다른 병인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 사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미용상 문제가 되고, 기능적으로 약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체시와 같은 양안 시기능의 저하, 때때로 복시, 어지러움, 두통 그리고 피로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사시는 왜 생기나요?

현재까지는 정확한 원인을 알지는 못하지만 안구를 움직이는 외안근의 협동운동에 이상이 있는 경우로 추정하며 기질적 원인(근육의 이상, 뇌손상, 신경마비 등), 심한 원시 그리고 한쪽 시력이 좋지 않은 경우 등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안질환

Child's eye diseases



▣ 어린이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안과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린이에게 비교적 자주 볼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안과 질환에는 사시, 약시, 속눈썹찌임, 눈꺼풀처짐, 선천 백내장 및 녹내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질환은 비교적 빨리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안과에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보일 때 안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이가 밝은 빛을 싫어하거나 한쪽 자꾸 감으려 할 때는 사시 및 속눈썹 찌임 등을, 검은 눈동자인 각막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유난히 크게 보일 때는 선천 녹내장을, 검은 눈동자 한 가운데 있는 동공이 하얗게 보일 경우는 선천 백내장을, 한쪽이나 양쪽 눈꺼풀이 쳐져 있어서 턱을 자주 들려고 할 때는 눈꺼풀처짐, 자꾸 고개를 한 쪽으로 돌리거나 기울이는 경우는 회선 사시나 눈떨림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학동기 이전은 시력 발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므로 안질환이 의심될 때는 가급적 빨리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시란 무엇인가요?

사물을 볼 때 두 눈이 같은 방향으로 보지 못하고, 한쪽 눈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으로 눈의 정렬이 바르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돌아가는 방향에 따라 안으로 몰리면 내사시, 밖으로 나가면 외사시라고 합니다.

▣ 어린이의 눈의 위치에 따른 여러 이상소견

- 생후 약 3개월까지는 눈의 위치가 불안정하여 사시가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생후 5개월 전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생후 3~4개월 이후에도 한눈이 안으로 몰려 있거나 밖으로 나가 있는 경우 진료를 보아야 합니다.
- 눈이 사시는 아닌 것 같은데 몰려 보여요 (거짓 내사시)**
콧등이 낮고 눈과 눈 사이의 미간이 넓은 아이들은 마치 눈이 안으로 몰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거짓 내사시라고 합니다. 이는 사시가 아니며 성장하면서 대개 정상 모습으로 됩니다.



거짓 내사시



콧대를 모아주면 사시가 없어집니다.

- 우리 아이는 TV를 볼 때 고개를 기울여요. 사시인가요?**
고개를 기울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시로 인하여 머리의 위치가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그 이외에도 골격 및 목 근육이상, 굴절 이상, 안진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 우리 아이의 눈이 안으로 몰려 보여요 (내사시)**

a. 영아 내사시



영아 내사시

생후 6개월 이내에 발견되는 내사시로 심하게 안으로

몰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영아내사시인 경우 일찍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b. 조절 내사시

원시로 인한 조절 내사시
(우안 내사시)원시안경(돋보기)으로
내사시가 교정된 모습

보통 1~3세경에 나타나며 대개 심한 원시로 인한 과도한 조절이 원인입니다. 원시 안경(돋보기 안경)을 착용해야 하며 안경으로 조절되는 사시이지만 때로는 안경을 써도 완전히 교정되지 않는 경우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안경은 대개 만 10세 이상(13~15세 정도)까지 착용하게 되나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착용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 우리 아이의 눈이 바깥으로 나가 보여요**



좌안 외사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사시로 평소에는 눈이 바르지만 피곤하거나 즐릴 때, 화내거나 아플 때, 명하니 있을 때 한 쪽 눈이 밖으로 나가는 외사시입니다. 항상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부모가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는 비수술적 치료인 가림치료를 할 수 있으나 한계가 있어서 결국 일정한 사시각 이상이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시기는 환아의 나이 등을 고려해서 하게 됩니다. 보통 만 4세 이후에 많이 하게 되나 발현 빈도와 융합 상태에 따라서 더 어린 나이에 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 내사시, 외사시 이외에도 수직사시, 마비사시, 특수사시 등이 있습니다.

▣ 사시는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사시라고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비수술적 치료는 한계가 있어 사시각이 일정 이상이 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가림 치료, 안경 그리고 프리즘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시 전문의에게 진료 후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 가림치료** : 약시가 있는 경우 좋은 눈 가림치료로 나쁜 눈의 시력이 발달되도록 하여 사시가 나타나는 빈도를 줄일 수 있고 사시 수술 전후의 보조적 치료로 사용합니다.
- 안경 및 프리즘 안경** : 조절내사시의 경우 원시를 동반하기 때문에 안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한 굴절이상이나 부동시가 있을 경우에는 약시 예방 또는 시력교정의 목적으로도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 속발성 사시가 발생하거나 사시각이 크지 않는 경우 특수 프리즘안경을 착용하기도 합니다.
- 수술적 요법** : 조절내사시를 제외한 모든 사시의 궁극적 치료법은 수술입니다. 수술로 외안근의 힘을 조절해 교정하는 방법으로 한 눈에 하거나 혹은 두 눈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 수술은 한번만 하면 완치도 되나요?

한번의 수술로 교정되기도 하나, 사시가 재발하거나 숨겨져 있던 다른 사시가 발생하는 경우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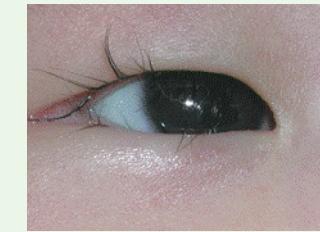
▣ 어린이의 속눈썹 찔림

덧눈꺼풀은 속눈썹이 안구에 닿아 결막(흰동자)과 각막(검은동자)에 상처를 만들고 눈에 자극증상을 일으키는 눈꺼풀의 이상입니다. 눈썹이 찌르게 되면 눈을 비비거나 눈을 깜빡이는 것이 첫 증상일 수도 있고 눈물고임, 눈부심, 결막충혈, 눈곱, 난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에서 나타나는 속눈썹 찔림의 대부분은 덧눈꺼풀로 인하여 속눈썹이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함에 따라 눈주위 살이 빠지면서 자연히 호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환아들이 수술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막의 상처나 눈의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안약 등의 보존적 치료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덧눈꺼풀 수술은 대개 눈썹아래를 절개하여 주름진 피부를 잘라내는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술 후 흉터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웃는 눈꺼풀은 쌍꺼풀을 만들어서 눈썹이 밖으로 나오도록 해주고 특히 어린이는 피부나 근육이 얇고 지방이 많지 않아서 대개는 매몰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덧눈꺼풀 어린이



덧눈꺼풀로 검은 동자를 찌름